

#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와 가계관리행동을 중심으로 —

## Comparative Analysis of Economic Life Satisfaction of Wife and Husband — Concentrated on Subjective Evaluation of Economic Level and Household Managerial Behaviors —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 사 : 朴 美 錦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Lecturer : Mi Kum, Park*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 桂 仙 子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 : Sun Ja, Kye*

본 연구는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한 지각 정도인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및 부부가 참여하는 가계관리행동 변인들이 부부의 가정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비교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거주의 1자녀 이상을 둔 부부로서, 500쌍의 설문지 중 367쌍이 본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편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 적정감, 자원 지각도, 상대적 비교감, 자원기여 평가도, 경제수준 향상감, 가계관리 참여도, 월평균 가계소득이었으며, 부인의 경우에는 소득 적정감, 상대적 비교감, 자원기여 평가도, 자가주택 소유여부, 남편의 직업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 모두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큰 변인은 소득 적정감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는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의 영향력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I. 서 론

물질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 또한 물질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본 논문은 1992학년도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였음.

환상을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경제수준이 다른 13개 국가 국민의 관심사를 비교 연구 한 Cantil(1965 : 161~162)에 의하면 모든 국가에서 조사대상자들은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ampbell등(1976 : 91)의 연구에서도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이 개인의 전체

생활만족의 중요한 예측치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오늘날 대중소비의 산업사회에서는 개인생활에서 경제적인 만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의 관심과 행복이 물질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Campbell등(1976 : 375~376)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인 만족이나 복지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보다는 자원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에 더 의존하며, Strumpel(1973 : 114~115)도 소득, 직업 등 개인의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가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즉 객관적인 경제환경보다 이러한 객관적인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더 개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 및 가족 개개인의 목표달성 및 욕구 충족을 위하여 가족공동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가정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부는 실제적인 가계관리수행자로서, 남편은 가계관리수행에 앞서서 가정의 경제자원관리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소통과정의 참여자로서 부부가 공동으로 행하는 가계관리형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경영의 공동책임자인 부부의 가정 경제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가계관리수행이 가정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가정의 경제생활 만족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및 부부가 참여하는 가계관리행동 변인들이 부부의 가정경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II. 문헌연구

### 1. 경제생활 만족의 개념

경제학에서는 경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효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즉 효용이란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데서 얻는

만족을 말한다(정창영, 1991 : 101). 그러나 사회학 등 다른 학문분야에서는 경제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행복 또는 만족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다. 또한 경제생활 만족도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복지 또는 경제적 복지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거나 개념이 동일시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를 위한 문헌연구에서는 경제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행복으로 표현하였거나, 복지 혹은 효용으로 표현하였더라도 경제생활 만족의 관련연구로 간주하고, 경제생활 만족도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한다.

Campbell등(1976 : 8)은 만족이란 열망과 성취간의 인지된 차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또한 인간은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목표라는 척도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만족이란 목표와 현실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고 Strumpel(1973 : 72)은 정의하였다. 따라서 만족이란 목표나 기대와 이들 목표의 달성 정도 즉 현실과의 사이에서 지각하는 차이로서 가정의 경제생활에서 이러한 차이를 덜 지각할수록 경제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Yuen(1976 : 4~6)은 경제복지란 개인의 소비수준과 일반적인 사회의 소비규범과의 사이에서 지각된 차이일 뿐 아니라 개인의 소비수준과 개인의 소비표준 사이에서 지각된 차이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이 차이가 적을수록 자기 가정의 경제상태에 만족할 것이라고 하였다. Dillard(1987 : 1)에 의하면 경제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이 경험하는 전체 복지감과 생활의 질의 중심요소로서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은 지각된 경제복지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제복지와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의 개념은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다르나, 이러한 개념을 종합해 보면 경제생활 만족도를 가정의 경제생활에서 경험하는 목표 및 기대의 달성 정도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충족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 2. 경제생활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와 경제생활 만족도

Easterlin(1973)은 소득과 만족 또는 행복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과 행복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개인의 부의 증가는 개인의 행복감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사회 전체의 부의 증가는 결코 사회 전체의 행복감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개인의 물질적인 부의 증가는 개인의 욕구충족에 기여하여 개인의 행복감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국가나 사회의 부가 축적되어도 개인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없는 것은 그 국가나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필요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mmons와 Diener(1985 : 163~164)는 만족도 측정의 중요한 요소로서 객관적 변인이 주관적 복지인 만족감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 객관적 변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심리적 과정인 사회적 비교감과 긍정적 영향감은 만족도를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Davis(1981 : 180~185) 연구에서는 자원 및 요구에 대한 주관적 평가변인이 남편과 부인 모두의 재정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개인의 전체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은 주로 주관적인 요인에 의한다고 하였다.

Dillard(1987 : 122~125)는 경제환경에 대한 만족을 연구하는데 독립변인으로 객관적 변인과 주관적 평가변인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 경제환경에 대한 만족을 설명하는데 객관적 변인만으로는 설명력이 32%이었고, 주관적 평가변인을 추가한 결과 58%로 26%가 증가하여 주관적 평가변인의 영향력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Winter등(1984 : 409~415)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소득과 자산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주관적 변인과 객관적 변인을 함께 사용하여 개인의 재정상태를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가정의 경제복지를 예측하는데 대부분 주관적 평가변인의 예측력이 입증되고 있으나 가정의 환경변인 중 소득, 직업, 학력 등의 영향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한가정의 경제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변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2) 가계관리행동과 경제생활 만족도

가계는 자원, 목표 및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원들이 자원을 획득, 배분, 소비하는 경제 주체이며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소비자 단위(이기춘, 1991 : 8)이며 과거 자급자족 경제체계와는 달리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가계 내에서의 소득의 획득, 소득의 배분, 구매 및 사용과 관련된 의사결정행동이 주요 가계관리가 되고 있다.

현대 화폐 경제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의 매개수단으로 화폐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가계관리는 돈과 관련된 가정의 경제자원관리라고 할 수 있다.

안영희(1984 : 332)는 가계는 소득과 지출로 구성되며 가계에 들어온 총 소득과 생계비 지출에 대한 관리방법을 가계관리라고 하였다.

Slusher등(1983 : 15)은 자원수준이 낮은 가정의 가족구성원들이 가정의 경제복지에 만족스러워한다면 이러한 만족은 경제적 환경보다 효율적인 가계관리(인적 자원의 효율극대화)의 결과라고 하였다. Titus(1988)는 과정요소로서 재정관리 과정을 계획과 수행의 두 차원으로 분리하고 산출요소로 순 자산과 가정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을 선정한다. 다음 체계이론에 적용시켜 연구한 결과 가계관리 능력이 가정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희와 오정옥(1991 : 31)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사회심리적 특성이 재정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가계의 재정관리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남편과 부인집단 모두 재정관리행동이 비합리적일수록 재정불일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계관리과정 내에 의사소통과 관련된 변인을 선정하여 남편의 가계관리 참여도가 경제생활 만족이나 가계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는 없으나, 관련성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 중 김재경과 문숙재(1992 : 70~72)의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갈등 중 의사소통 갈등의 정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의사소통 갈등 정도가 높은 집단이 전체 생

확만족 및 생활만족의 하위영역 중에서 재정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설정

이상의 문헌고찰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및 가계관리행동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 2. 용어 정의

1) 소득 걱정감 : 현재소득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을 어느정도 구입할 수 있으며 가정생활을 유지하기에 얼마나 걱정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2) 경제수준 향상감 : 현재 가정의 전체적인 재정상태와 소득을 5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3) 상대적 비교감 : 자신의 현재 생활수준을 이웃이나 친구 또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비교하였을 때 느끼는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4) 자원 지각도 : 자신이 행하는 직업 또는 가계생산이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 정도로, 남편의 자원 지각도는 직업에 대한 남편자신의 지각 정도이며, 부인의 자원 지각도는 가계생산에 대한 부인자신의 지각 정도이다.

5) 배우자의 자원기여 평가도 : 배우자의 직업이나 가계생산이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남편의 자원기여 평가도는 주부가 담당하는 가계생산의 기여 정도에 대하여 남편이 평가하는 정도이며, 부인의 자원기여 평가도는 남편이 담당하는 직업의 기여 정도에 대하여 부인이 평가하는 정도이다.

6) 남편의 가계관리 참여도 : 가정 경제자원의 할당, 분배 및 소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가계관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에 남편이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7) 가계관리능력 : 가정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의 경제적 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계획과 수행의 차원에서 실제 주부가 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8) 경제생활 만족도 : 가정의 일상적 소비생활이나 생활표준 달성 및 경제환경변화 대비 등의 경제생활영역에서 경험하는 목표 및 기대달성 정도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충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 3. 조사도구의 구성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변인 중 소득 걱정감, 경제수준 향상감, 상대적 비교감은 Dillard(1987), Davis(1981), Wilhelm과 Iams(1986)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각각 2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자원 지각도, 자원기여 평가도 척도는 김숙이(1987), 김양희(1992)등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각 5문항씩이다.

남편의 가계관리참여도는 Godwin과 Carroll(1986), Titus(1988) 및 정선희와 오정옥(1991)의 재정관리행동 척도를 참고하였으며 총 9문항이며, 부인의 가계관리능력은 Godwin과 Carroll(1986), Titus(1988), 김순미(1986)의 척도를 참고하였으며,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경제생활 만족도는 Wilhelm등(1987), Titus(1988), Dillard(1987)의 경제생활 만족도 척도를 참고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에서 분석에 사용한 문항수는 총 28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 4. 조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들은 안면 타당도에 의한 내용 타당도 검증,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계수로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에 의한 구성 타당도 검증,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증의 순서로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변인	구분	척도	문항수	신뢰도계수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소득 걱정감	2	$\alpha=.72$
		경제수준 향상감	2	$\alpha=.67$
		상대적 비교감	2	$\alpha=.77$
	남편	자원 지각도(직업)	5	$\alpha=.80$
		자원기여 평가도(가계생산)	5	$\alpha=.75$
	부인	자원 지각도(가계생산)	5	$\alpha=.75$
		자원기여 평가도(직업)	5	$\alpha=.88$
가계관리 행동	가계관리 참여도		9	$\alpha=.87$
	가계관리능력	계획	7	$\alpha=.78$
		수행	7	$\alpha=.80$
경제생활 만족도	생활표준 달성 및 장래 대비		13	$\alpha=.94$
	일상 소비생활		9	$\alpha=.86$
	자녀교육 및 정액지출 소비생활		6	$\alpha=.84$

### 5. 조사대상,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자녀 이상을 둔 부부로서, 조사시기는 1992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에 걸쳐 1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92년 11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5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의 22개구 중 강북지역 7개구와 강남지역 6개구의 초, 중고등학교 학생의 부모 및 아파트 단지의 부부를, 또한 직업분포를 고려하여 강북지역의 2개구와 강남지역의 2개구의 금융기관, 일반회사, 학교기관 및 자영업체에 근무하는 남성과 그 부인에게 자기기업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총 500쌍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415쌍 중 부실기재라고 판단되는 설문지는 제외하여 367쌍의 설문지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빈도·백분율, 산술평균·표준편차,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 paired t-test,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자료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 2. 경제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표 3에서와 같이 남편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 걱정감( $\beta=.29$ ), 자원 지각도( $\beta=.24$ ), 상대적 비교감( $\beta=.20$ ), 자원기여 평가도( $\beta=.16$ ), 월평균 가계소득( $\beta=.15$ ), 경제수준 향상감( $\beta=.12$ ), 가계관리 참여도( $\beta=.10$ )로서 소득 걱정감이 높을수록, 자원 지각도가 높을수록, 상대적 비교감이 높을수록, 자원기여 평가도가 높을수록,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수준 향상감이 높을수록, 가계관리 참여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경제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7개 변인의 설명력은 62.3%이었으며, 소득 걱정감이 남편의 경제생활 만족도를 예측하는 제 1의 영향 변인으로 검증되었다.

부인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 걱정감( $\beta=.37$ ), 상대적 비교감( $\beta=.30$ ), 자원기여 평가도( $\beta=.29$ ), 주택 소유여부( $\beta=.10$ ), 남편직업(전문 관리직;  $\beta=-.08$ )으로 소득 걱정감이 높을수록, 상대적 비교감이 높을수록, 자원기여 평가도가 높을수록, 자가주택을 소유하였을 때 부인의 경제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직업이 전문 관리직이었을 때 부인의 경제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표 3.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sup>2)</sup> (N=367)

독립 변인	남 편		부 인	
	b	β	b	β
소득 적정감	3.35	.29***	4.11	.37***
자원 지각도	1.10	.24***	—	—
상대적 비교감	2.21	.20***	3.91	.30***
자원기여 평가도	.73	.16***	1.32	.29***
월평균 가계소득	.02	.15***	—	—
경제수준 향상감	1.22	.12*	—	—
가계관리 참여도	.23	.10*	—	—
남편 직업 D2 <sup>3)</sup>	—	—	-3.00	-.08*
상수	6.53		16.73	
F비	60.01***		83.14***	
R <sup>2</sup>	.623		.623	

\*P<.05 \*\*P<.01 \*\*\*p<.001

88), 김연정과 김순미(1991)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타인과 비교를 하여 자신의 가정의 위치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우월감 혹은 자신감을 느끼면서 상대적인 비교만족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기여 평가도가 경제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남편의 경우 주부의 가계생산이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인의 경우 남편의 직업이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경제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원 지각도는 남편의 경제생활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인의 경우에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의 경우에만 남편 자신의 자원 지각도가 높을수록, 즉 자신의 직업이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느낄수록 경제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화폐소득은 가계관리를 통하여 배분 할당되어 가정의 경제목표를 성취해 나가게 하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 되기 때문에, 화폐소득의 주 담당자인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업활동에서 획득한 소득이 가정경제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느낄수록 경제생활 만족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부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계관리를 통한 가계생산이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 정도, 즉 비화폐소득을 통한 실질소득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남편의 직업적인 역할에 대한 평가 정도가 부인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면 주부들이 가계생산을 통하여 가족원을 위한 효용을 창출하고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는 하지만, 실제로 화폐경제사회에서 금전소득이 가정의 경제관리에 일차적인 자원으로서 사용가치를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늘날 화폐경제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되면서 여성의 사회활동 결과인 경제적 능력에 상당히 높은 가치를 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내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가계생산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라는 주부의 가정적 역할에 자신감이 상실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 금전소득자가 아닌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비가시적인 가계생산 능력보다는 남편의 가시적인 금전소득자로서의 능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2) 다중회귀분석 중 stepwise방법 사용하였으며,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유의하지 않은 변인은 독립변인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남편과 부인 각각에게 유의하지 않은 변인은 빈칸으로 처리하였음.

3) 독립변인 중 남편의 직업과 주택소유여부는 가변인으로 처리되었음.

d1=남편의 직업(판매 사무직 및 자영상공직 : 1, 나머지 : 0), d2=남편의 직업(전문 관리직 : 1, 나머지 : 0), d3=주택 소유여부(자가 : 1, 전세 및 월세 : 0).

사료된다.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가계관리행동의 영향력을 보면 남편의 경우 자신의 가계관리 참여도가 경제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 자신이 가정의 경제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인 가계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가계관리자로서 책임을 의식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역할 수행 결과에 따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부인의 경제생활 만족도에는 가계관리행동변인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주부의 경제생활 만족도에는 가계관리의 수단이 되는 경제자원의 소유여부나 이 자원에 대한 평가 정도의 영향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계관리의 책임자인 주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로서의 고충과 끊임없이 요구되는 가계관리상의 노력 때문에 경제생활 만족도에 가계관리능력의 영향력이 부각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 3.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및 가계관리행동의 상대적 기여도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가계관리행동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인군들을 추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1단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다음 2단계에서는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3단계에서는 가계관리행동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남편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인군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설명력이 21.2% ( $p < .001$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61.8%로 1단계에 비하여 40.6% ( $p < .001$ )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계관리행동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62.6%로 0.8

% ( $p < .05$ )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량은 미미한 편이었다.

다음으로 부인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인군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설명력이 23.3% ( $p < .001$ )로 나타났다. 이어서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62.8%로 1단계에 비해서 39.5% ( $p < .001$ )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 가계관리행동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63.1%로 0.3% 증가하였으나 증가량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편과 부인 모두가 2단계에서 설명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양보다는 그 자원에 대한 지각 정도가 경제생활 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가정의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합리적인 가계관리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가계관리행동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남편의 경우에만 남편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남편의 가계관리 참여도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합리적인 가계관리의 목적이 가정자원의 최적의 사용에 따른 최대의 만족 또는 효용 창출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가정의 경제자원 및 이 자원에 대한 지각 정도가 가정의 경제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도록 매개역할을 하는 가계관리행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계관리행동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변인의 영향력 못지 않게 월평균 가계소득, 주택 소유여부, 남편의 직업 등의 영향력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인 및 가정의 경제복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동시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정의 경제



표 4.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인군들의 위계적 회귀분석<sup>4)</sup> (N=367)

독립변인	1 단계			2 단계			3 단계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b	β	b	β	b	β	b	β				
가족수	-1.55	-.09	-1.48	-.08	-.98	-.06	-.72	-.04	-.88	-.05	-.68	-.04
남편 학력	-.22	-.04	.49	.07	-.46	-.08	-.14	-.02	-.48	-.08	-.19	-.03
남편 직업 D1	6.75	.21*	-.17	-.03	1.77	.06	-.85	-.02	2.50	.08	-.13	-.003
월평균 가계소득	.04	.36**	.05	.39***	.02	.15***	.009	.07	.02	.15***	.009	.07
주택 소유여부	8.10	.22***	10.49	.25***	3.33	.09	3.83	.09*	3.4	.10*	3.89	.09*
연령	-.25	-.12	-.36	-.13*	-.11	-.05	.08	.03	-.10	-.05	.12	.05
부인 학력	.17	.08	.62	.09	.30	.05	-.06	-.008	.26	.04	-.07	-.01
남편 직업 D2	8.96	.27*	-5.40	-.15	80	.02	-3.44	-.09	1.43	.04	-2.73	-.07
자원기여 평가도					.82	.18***	1.24	.28***	.71	.16***	1.17	.26***
경제수준 향상감					1.26	.12*	.94	.09	1.17	.11*	1.00	.10
자원 지각도					1.30	.28***	.22	.04	1.23	.27***	.15	.03
소득 적정감					3.06	.26***	3.54	.31***	3.09	.26***	3.49	.31***
상대적 비교감					2.02	.18**	3.44	.27***	2.06	.18**	3.46	.27***
가계관리능력									-.08	-.04	.07	.03
가계관리 참여도									.26	-.11*	.18	.11
상수	88.26		78.98		18.80		15.71		18.26		7.49	
F비	9.16***		10.18***		31.29***		32.41***		28.08**		28.66***	
R <sup>2</sup>	.212		.233		.618		.628		.626		.631	
R <sup>2</sup> 증가량					.406***		.390***		.008*		.003	

\*p<.05 \*\*p<.01 \*\*\*p<.001

4) 다중회귀분석 중 enter방법을 사용하였음.

환경에 대한 지각 정도인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및 부부가 참여하는 가계관리행동 변인들이 부부의 가정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비교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편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총 7개 변인으로 소득 적정감 · 자원 지각도 · 상대적 비교감 · 자원기여 평가도 · 경제수준 향상감 · 남편의 가계관리 참여도가 각각 높을수록, 그리고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남편의 경제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부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총 5개 변인으로 소득 적정감 · 상대적 비교감 · 자원기여 평가도가 높을수록, 자가주택을 소유하고있을 때 경제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직업이 전문 관리적이었을 때 부인의 경제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 모두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큰 변인은 소득 적정감으로 나타났다.

2)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인군들의 상대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남편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21.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61.8%로 40.6% ( $p < .001$ )의 설명력이 증가되었으며, 가계관리행동 변인이 추가되어 62.8%로 0.8% ( $p < .05$ )의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부인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23.3%이었으며,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62.8%로 39.5% ( $p < .001$ )의 설명력이 증가되었으며, 가계관리행동 변인이 추가되어 63.1%로 0.3%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나 증가량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는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의 영향력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현실 또는 가정의 실제 경제적 자원의 소유 정도 보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각 정도가 경제생활 만족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2) 가족구성원의 인적 자원 측면에서의 지각도인 자원 지각도와 자원기여 평가도의 영향력을 보면 남편의 경제생활 만족도에는 자원 지각도와 자원기여 평가도가 영향변인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부인의 경제생활 만족도에는 자원기여 평가도만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은 자신의 직업적 역할과 부인의 가계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지각 정도가 남편 자신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부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계생산이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 정도보다는 남편의 직업적인 역할에 대한 지각 정도가 부인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생활 만족도가 가정의 경제자원관리의 결과 즉 경제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만족여부에 대한 평가 정도이기 때문에 가정경제의 일차적 자원인 금전소득 능력에 관심이 더 큰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가시적인 경제능력으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쉬운 화폐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생산의 실질소득의 가치를 여성 스스로가 과소평가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의 영향변인으로 예측하였던 가계관리행동의 영향력은 남편의 경제생활 만족도에서 남편의 가계관리 참여도의 영향력만이 검증되었을 뿐, 부인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의 영향력이 크고, 또한 부인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합리적인 가계관리를 수행한다고 해도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남편의 금전소득 보다 가계에 공헌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반면에 남편의 경우에는 가정의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인 가계관리에 참여를 하여 공동 가계관리자로서 책임을 의식하게 되고 이러한 역할 수행에 따라 남편 자신의 경제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가계관리모델을 제시해주어 주부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참여하고, 이에 따른 경제생활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는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한 지각 정도인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가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도 여전히 검증되고 있으므로 한 가정의 경제복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경제수준지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취업주부의 가정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가정의 금전소득의 원천으로 남편의 직업만을 연구변인으로 선정하여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경제생활 만족도는 가정의 내적인 경제환경 뿐만 아니라 가정 외적인 환경 즉 인플레이션 정도나 부동산 경기 등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으나 가정 외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 한 가정의 경제복지 수준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으로는 금전 소득원으로서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에 따른 가족원의 경제생활 만족도의 연구가 필요하며, 경제생활 만족도와 전체 생활만족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경제생활 만족도가 가정의 목표달성과 나아가서 생활의 질을 인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숙이(1987). 도시 주부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김순미(1986). 도시가계의 금융자산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3) 김양희·박충선·서동인·신화용·조병은·최규련(1992).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 *대한가정학회지* 30(3), 285-305.
- 4) 김연정·김순미(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03-117.
- 5) 김재경·문숙재(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53-74.
- 6) 안영희(1984).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른 가계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경상대 논문집(사회계 편)* 23(1), 331-346.
- 7) 이기춘(1991). *가정경제학*. 서울: 교문사.
- 8) 임 정(1988). 주부의 가계복지인지 및 관련요인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청구논문.
- 9) 정선희·오정옥(1991). 가계의 재정불일치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35.
- 10) 정창영(1991). *경제학원론*. 서울: 세경사.
- 11) Campbell, A., Converse, P.E. & Rodgers, W.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12) Cantril, H.(1965).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Rutgers University Press : New Jersey.
- 13) Davis, E. P.(1981).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 determinants and correla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14)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 2nd. Ed., Allyn and Bacon, Inc., Boston.
- 15) Dillard, B. L.(1987). Household production as a determinant of satisfaction with economic circumsta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16) Easterlin, R. A.(1973). Does money buy happiness?, *The Public Interest*, 30 : 3-10.
- 17) Emmons, R. A. & Diener, ED.(1985). Factors predicting satisfaction judgements : A comparative examin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 157-167.
- 18) Godwin, D. D. & Carrol, D. D.(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s and behaviour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 77-96.
- 19) Mammen, S.(1980). Perceived adequacy of income-an element of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20) Slusher, B. J., Helmick, S. A. & Metzzen, E. J. (1983).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 The relative impact of value concordance and resource

- adequacy, in M.M. Dunsing(Ed.),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on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Urbana, IL : University of Illinois, pp.14-26.
- 21) Strumpel, B.(1973). Economic life-styles, values and subjective welfare an empirical approach, in Eleanor B. Sheldon(Ed.) *Family economic behavior : problems and perspets*, Philadelphia : Lippincott, pp.69-125.
- 22) Titus, P. M.(1988). Financial management competencies of money managers : Bases for household net worth and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23) Wilhelm, M. S. & Iams, D. R.(1986). Measures of economic well-being husband and wife consensus.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32 : 144-152.
- 24) Wilhelm, M. S., Iams, D. R. & Rudd, J.(1987). Husband and wife agreement of indicator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1), September, 13-22.
- 25) Williams, F. L, Nall, M. & Deck, P. Z.(1976). Financial problems of urban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3), March, 185-197.
- 26) Winter, M., Bivens, G. E. & Morris, E. W.(1984). The assessment of subjective change in family financial well-being. *Family Strengths* 5 : 399-417.
- 27) Yuen, J. C.(1976). Determinants of the wife's perception of economic well-being among disadvantaged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